

간경화 투병 아버지 위해 간 이식

전남 담양고 김상도 군 효행 감동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내행 부교육감 노일숙)은 간경화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담양고등학교 2학년 김상도군의 효행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김상도군의 아버지(44. 김민석)는 2007년에 B형 간염이 발병했다가 2008년에 간경화로 진행되어 투병하고 있던 중이었다. 올해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 이식만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

실을 알게 된 김군은 주저 없이 자신의 간을 이식하겠다고 나섰다. 김군은 평소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항상 사려 깊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 특히, 학업에 전념하는 중에도 틈틈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일손을 도우는 효성이 지극한 학생이기도 하다.

작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김군은 현재 빠른 회복 중에 있으며, 아버지 또한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미담사례를 접한 전라남도교육청은 김상도 학생에게 '자랑스러운 학생상' 표창과 함께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여 가슴 따뜻한 효행을 높이 치하했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지역교육청 경쟁력 높이기 '쑥쑥'

광주교육청, 2009년 동·서부교육청 우수사례 발표평가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 14일 지역교육청(동·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우수사례 발표평가'를 가졌다. 이번 발표평가는 2009년 역점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로 지역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

해 더욱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발표평가 심사는 보고서 심사와 발표 심사로 구분되었는데, 보고서 심사는 계획의 적절성, 실행과정 충실성,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발표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정책추진과정 및 방법, 성과 등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들을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평가를 통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교육청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교육청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캄보디아에 우물 기증한 광주동일전자정보고 RCY봉사단

광주 동일전자정보고 권철환선생님을 비롯한 6명의 RCY봉사단 학생들이 지난 2009년 여름부터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캄보디아 농촌 7개 지역에 우물을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물부족 때문에 조기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지구 온난화의 현상으로 건기는 전과 달리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과거, 가끔씩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들판에 크고 작은 웅덩이가 모두 말라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은 웅덩이들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들이 사람과 함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위생이 나빠 비교적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물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원 정도. 깨끗한 물만 마셔도 캄보디아 농촌주민 수백명이 크고 작은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물은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증된 우물 앞에는 기증자 명단과 대한민국의 국호가 새겨져 있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인류애와 봉사정신을 일깨워주는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를 가져다 줘 의미가 깊다. 캄보디아 교민사회에 소개된 한 잡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물 7개를 동시에 후원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이 한국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이젠 혼자 할 수 있어요"

광주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서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총 50명)로 그룹별(각 5명) 오전, 오후 주10회(회당 2시간)씩 다양한 미술 활동 및 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학교현장에서도 겨울방학을 이용 운남초를 비롯 7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24명(Mentee)과 지역사회 대학생 멘토 20명(Mentor)을 연결해 개별화된 기초 생활지도와 교과학습 지도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활동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학 중 시간 활용에 흥미와 경험 중심의 개별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양세열 교육장은 "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적합한 더욱 다양하고 알찬 방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광주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더욱 충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나가사키공고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 교류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전남공고, 일본 나가사키공고 방문

첨단산업설비 특성화고등학교인 전남공업고등학교(교장 김용희)는 지난 1월 12일 국제 교류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본 나가사키공고를 방문했다. 나가사키공고는 전남공고의 자매결연 학교로서 2007년부터 4년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은 일본공업학교의 실습장과 교실, 기능경대회 준비현장 등을 견학하며 일본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일본에 비해 손색없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능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학생 교류회를 통해 견학동안 얻은 소감을 나누고 한 일일양국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등 우애를 다졌다. 동시간대 교사들은 기능영재 육성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모리오카

요시유키교장 등 지난 2009년 9월 전국기능대회 때 전남공고를 방문했던 일본교사들은 특히 제 조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준 전남공고 학생들에 대한 찬탄을 아끼지 않으며 선수육성 노후우를 묻기도 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행사를 마치고 참가교사인 수학과 신혜원 교사는 "일본 공업학교의 실습장면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교류시간까지 가져 매우 기쁘다"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기계과 1학년 박유수 학생은 "일본학생들은 배려심이 깊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인상적이다"며 "다음 중국 국제

교류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해 국제교류 체험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이 교류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매일 아침 일본의 문화와 일본어를 배우는 수업을 진행했고, 영어와 일본어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경비를 지원해왔다. 학교는 이와 같은 행태를 보다 확대하여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갈 예정이다. 김용희 교장은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매우 많다"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와 선진문화와 기술을 접하여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류 체험학습단은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자매학교인 나가사키공고를 비롯, 미츠비시조선박물관, 나가사키평화공원과 원폭기념관, 시민방재센터 등 견학일정을 견학했다. 전남공고는 2007년 나가사키공고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중국 상해 기술공업학교와도 교류하고 있으며 2009에도 상해일일 방문한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009학년도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손덕원 기자 sdw@eduyonhap.com



◆전남공고 학생들은 일본 나가사키공고 수업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요리 질로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 맛 · 멋 · 가격 · 위생 · 대민족 - 주미정의 멋과 맛 서비스에 위해 보세요!

- 상건제, 가족모임, 각종단체모임 최적저 장소
- 250평의 넓은 공간 홀마다 형형색색 멋스러운
- 식후 비즈니스는 무료 커피숍에서 풍류 있게
- 80여명 동시수용 주차장은 언제나 여유만만

Korea Restaurant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준의동 93-3 | 예약문의 (032) 682-8838